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 돌진...200명 이상 사상



20일 오후 7시경(현지시간) 독일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해 5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MDR방송은 경찰과 구조당국을 인용해 부상자 가운데 40명은 중상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사망자 5명 중 1명은 9살 소년이라고 밝혔다.

현장 촬영 영상에는 가판대 사이 통로에 밀집한 인파 속으로 차량 한대가 고속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작센안할트주 당국은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고의적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젤로프 주 총리는 용의자에 대해 “2006년 독일에 와 작센안할트

주 베른부르크에서 의사로 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50세 남성”이라고 말했다.

또 그가 뒤편 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몰고 돌진했으며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조당국은 현장에 응급치료 부스를 차리고 헬기를 투입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튀링겐주 에르푸르트 당국은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관내 크리스마스 마켓을 폐쇄했다.

독일에서는 2016년 12월 19일 베를린 도심 크리스마스 마켓에 트럭이 돌진해 13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친 바 있다. 튀니지 출신 용의자 아니스 암리(당시 24세)는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로, 범행 나흘 뒤 이탈리아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독일 정부는 이후에도 크리스마스 마켓 공격을 계획한 용의자를 여러 차례 적발하는 등 연말마다 테러 위협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보안당국은 성탄절을 끼고 연말 열리는 야외 장터인 크리스마스 마켓이 기독교 가치의 상징이어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무부는 지난달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흥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하나님, 연말 성탄절마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표적 삼은 테러 범죄가 일어나 공포와 슬픔 속에 잠긴 독일을 주님의 평화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치료는 의사임에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공격하게 한 거짓된 이슬람의 사상과 그 배후의 사탄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소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거짓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속히 들려질 수 있도록 독일의 교회를 깨워주소서. 그리하여 구주의 나심을 모두가 기뻐하는 독일이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예멘, 콜레라 환자 25만 명...861명 사망

예멘에서는 올해 들어 12월 1일 기준으로 24만 9,900건의 콜레라 의심 사례와 861명의 관련 사망자가 보고됐다. 23일 유엔 인권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 콜레라 환자의 35%와 전 세계 보고된 콜레라 사망자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11월, 예멘에서 보고된 콜레라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와 27%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예멘 대표이자 예멘 임무 책임자인 아르투로 페시 간 박사는 “콜레라와 급성 수양성 설사 같은 수인성 질병의 발생은 이미 여러 질병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예멘의 보건 시스템에 큰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11월 말까지 예멘에서 47개의 설사 치료 센터(DTC)와 234개의 구강 재수화 센터(ORC)가 자금 부족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까지 17개의 DTC와 39개의 ORC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는 DTC의 84%와 ORC의 62%에 해당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1-12)

하나님, 기후 변화와 오랜 내전으로 사회 기반 시설뿐 아니라 보건 시스템도 붕괴되어 작년보다 콜레라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해 위기를 겪고 있는 예멘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내전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오니 이 땅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소서. 또한 진리를 몰라 육체보다 더 중한 영혼의 고통에 처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 미국, 입양한 두 아들 성적 학대한 동성애 커플 징역 100년 선고

미국 조지아주의 동성애자 부부가 아들 두 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추행, 아동 성 착취 혐의로 징역 100년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뉴욕포스트를 인용해 25일 전했다. 게이 커플 윌리엄(34)과 재커리 줄록(36)은 입양한 두 아들을 끔찍하게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징역 100년을 선고받았다. 아들들은 각각 12세, 10세 형제로 기독교 특수 기관에서 입양됐다. 윌리엄은 공무원, 재커리는 은행에서 일해 외부에서는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았지만, 이들은 아들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고, 아동 포르노를 만들기 위해 학대 장면을 촬영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치 포주처럼 SNS를 통해 지역 소아성애자들이 모인 그룹 중 최소 두 명의 남성에게 아들들을 넘기기도 했다. 이 그룹의 한 멤버가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하다 적발되면서 이 커플도 체포됐으며, 이 멤버는 경찰에 “줄록 커플이 집에 사는 어린 남자아이들과 함께 포르노를 만든다”고 고발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예레미야 4:4)

하나님, 미국의 동성애자 커플이 성학대의 목적으로 어린 소년들을 입양해 저지른 참담한 만행을 돌아보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악을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 된 자리를 꾸짖어주시고 짓밟힌 어린 영혼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미국이 이 사건을 통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에 반한 모든 법과 정책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179명 사망 추정·2명 생존...가족 오열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151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여객기는 착륙 직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1분 뒤 구조요청 신호를 관제탑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당국은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장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기 기체는 활주로 주변의 시설물인 외벽에 충돌하면서 반파됐고, 불길에 휩싸였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175명은 한국인이 173명, 나머지 2명은 태국인인 것으로 잠정 분류됐다. 여객기 기체는 꼬리 칸을 제외하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 46분쯤 초기 진화를 마쳤고, 기체 후미에서 부상자 2명을 잇달아 구조했다. 부상자 2명은 모두 승무원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소방 당국은 4시 49분 기준 사망한 151명도 수습했고, 현장에 임시 영안소를 설치했다.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탑승자는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날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어 “담장과 충돌한 이후 기체 밖으로 승객들이 쏟아졌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1시 30분께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께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예정했던 도착 시간에 무안공항 활주로를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안공항 활주로는 짧은 탓에 충돌사고가 났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활주로 길이는 2천800m로, 이전에도 유사한 크기의 항공기가 계속 운행해왔다”며 국토교통부는 선을 그었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인천공항(3천750-4천m), 김포공항(3천200m-3천600m) 보다는 짧지만, 다른 국제공항인 청주공항(2천744m), 대구공항(2천755m)보다는 길다.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와 전남 지역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인명 피해도 이 지역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로새서 1:13-14)

하나님, 전남 무안 공항에서 추락한 여객기로 인해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오열이 멈추지 않는 유가족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옵소서. 주여,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가족과 친구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이 교회를 통해 더욱 전파되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오직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홍콩, 해외 체류 민주활동가 6명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현상수배...여권도 취소

홍콩 당국이 해외 체류 민주 활동가 6명을 현상수배에 나섰고, 7명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혐의 도주자'로 추가 지정했다고 뉴시스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홍콩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민주활동가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인당 100만 홍콩달러(약 1억 8,7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번에 현상수배자로 지목된 인원은 홍콩 정치평론가 청 김와(63), 캐나다에 본부를 둔 NGO '홍콩스테이션' 설립자 조셉 테이(62)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콩 경찰 수배 리스트에 오른 인권활동가는 총 19명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홍콩 보안 당국은 해외 체류 인권운동가 7명에 대해 이들의 여권을 취소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혐의 도주자' 목록에 추가했다. 앞서 지난 6월 홍콩 보안 당국은 해외 체류 인권운동가 6명을 최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혐의 도주자'로 지정하며, 처음으로 현상금을 내걸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데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시편 103:6,17-18)

하나님,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반정부 활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인해 언론과 자유를 위한 외침이 점점 제한받고 위축되고 있는 홍콩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땅을 공산화하려는 악한 세력을 꾸짖어 주시고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소서.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잃고 홍콩을 떠나거나 체제에 순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주께 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를 통해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이르게 하사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 인도, 18세 미만 아동 불법 결혼 5,000명 체포

인도 북동부 아삼주가 불법 아동 결혼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약 5,000명을 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힌두스탄타임스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아삼주는 올해 2월부터 아동 결혼 근절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최근 416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인도 법에 따르면 결혼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지만, 빈곤이 만연한 시골 지역에서는 부모가 재정적 안정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결혼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 대법원은 2017년 미성년자 아내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인도에서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은 2005-2006년 47%에서 2019-2021년 23.3%로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하나님, 인도에서 아동 결혼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부모의 재정적 안정과 오랜 관습으로 아동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소서. 주여, 힌두교 사상과 가증한 풍속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여 주셔서 이들의 무지함을 벗겨 주십시오. 또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 결혼에 묶인 어린 소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된 이들이 인도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신부 된 교회로 세워주소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그의 앞에 부르짖으라” 브라질서 교량 붕괴로 10여 명 사망·실종…강에 화학물질 유출



지난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북동부에서 교량이 붕괴해 4명이 사망하고, 최소 13명이 실종된 가운데 황산과 농약 등이 대량으로 유출돼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인용한 브라질 국영 뉴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붕괴 당시 다리를 지나던 트럭 4대, 승용차 3대, 모터사이클 3대가 토크탕스 강에 빠졌다.

이 중 트럭들에는 2만 5천L의 농약과 76t의 황산이 실려 있었다. 유해 화학물질이 현재 새어나오고 있는지 또는 용기의 밀봉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상세한 수질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브라질 수질관리 당국은 강물을 마시거나 강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라냐오 소방당국은 잠수부 25명을 대기시켜 놓고 수중 수색 작업을 준비 중이지만,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에 따른 위험 탓에 실제 수중 수색은 하지 못하고 있다. 붕괴 사고는 브라질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따 명명된 ‘주셀리누 쿠비체크 지 올리베이라’ 다리에서 22일 오후에 발생했다.

1960년대에 지어진 이 다리는 토크탕스 강을 가로질러 마라냐오 주(州) 이스트레이투와 토크탕스 주 아가아르노폴리스를 연결하는 구조물로, 길이는 533m였다. 지금까지 시신이 확인된 사망자는 남성 1명, 여성 3명이며, 사고 당일에 남성 생존자 1명이 구조됐다.

현장 사진을 보면 이 다리는 마치 1994년 10월 21일 서울에서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 직후 광경처럼 마치 ‘씩둑’ 잘린듯한 콘크리트 절단면과 철근이 드러나 있다. 사고 전부터 다리에 균열이 보이는 등 징조가 심상치 않았는데도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인재’(人災)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고 전날인 21일 현지 주민인 한 남성은 이 교량에 육안으로 보이는 균열이 생겼다며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임박한 붕괴 사고 위험을 경고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출처: 연합뉴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시편 18:6)

하나님, 브라질의 교량이 사고 전부터 이미 균열이 있어 사전 예방이 가능했지만, 미흡한 대처로 인한 처참한 붕괴가 발생한 소식을 주께 고합니다. 유해 물질의 유출 가능성으로 더 큰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잠수부를 통한 수색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실종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유가족과 사고를 주목하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영혼의 재난을 면케 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브라질 교회가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께 아뢰며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영혼 구원의 응답을 얻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부산, 퀴어행사와 퀴어 반대 집회 동시 열려

부산에서 퀴어행사가 진행된 한편, 이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고 연합뉴스와 국민일보가 전했다. 22일 오후 부산 서면에서는 퀴어문화협동조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부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2024 메리 퀴어스마스' 행사가 진행됐으며 100여 명이 참가했다. 공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면 일대를 행진했다. 한편, 같은 시각 인근에서는 건강한 부산 시민 만들기 시민연대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집회로 '성탄절과 함께하는 레알러브시민축제'를 열어 'YES! 축성탄, NO! 메리 퀴어스마스 동성애'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약 8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퀴어행사와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했다. 행사는 주요 연사들의 발언으로 시작해 퀴어 행사와 성혁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단비 워십팀이 나와 찬양으로 성탄절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게 주된 특징이었다.

아비의 혼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니라(잠언 15:5,9)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마치 조롱하듯 퀴어스마스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행사를 벌인 이들의 망령된 행위를 꾸짖어 주십시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죄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퀴어반대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과 한국교회를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삶의 경계를 세우며 여호와의 공의를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소서.

▲ 중국 군사력 확대, 2030년에 핵탄두 1,000개 보유

중국이 핵무장을 비롯한 군사력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중반까지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개 이상 보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 국방부가 18일 발표한 '2024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작년 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00개 이상의 핵탄두가 증가했고, 이런 추세로 가면 2030년까지 1,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올해 핵탄두 보유 수가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와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지만 수년 내 네 자릿수 핵탄두를 보유한 3대 핵강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재래식 및 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발전을 이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시편 62:3,5)

하나님,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핵탄두를 늘리며 무기 개발에 힘써 더욱 강력한 통제권과 권력을 쥐려 하는 중국을 꾸짖어 주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위태한 자세로 타국을 향해 위협과 공격의 기회를 엿보는 중국 위성자들에게 같은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는 주의 경고가 들려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깨어 눈물로 기도하는 중국 지하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사 모든 영혼에 가장 시급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